
주간 사우디 동향

(2019.03.22.-03.28)

2019.03.28.(목), 주사우디대사관

1. 일부 개각(3.24)

- 방위사업청장(GAMI: General Authority for Military industries): Ahmed bin Abdulaziz bin Al-Muhammad Al-Owhali
- 교육부 고등교육 담당 차관: Hatim bin Hassan bin Hamza Al-Marzouqi
- 무역청장(General Authority for Foreign Trade): Abdulrahman Bin Ahmed Bin Hamdan Al-Harbi
- 교육부 차관보: Saad Bin Saud Bin Majid Al-Fehaid
- 고용부 차관보: Muhammad Bin Nasser Bin Ali Al-Jasser
- 일부 대학 총장 교체(차관급)
 - Imam Muhammad Bin Saud Islamic University: Ahmed Bin Salim Bin Muhammad Al-Ameri
 - Princess Noura Bint Abdulrahman University: Inaas Bint Sulaiman Bin Muhammad Al-Isa
 - Northern Border University: Muhammad Bin Yahya Bin Gharamah Al-Shihri

2. 각료회의 결과(3.26)

- 경제개발위원회(Council of Economic Affairs and Development)가 상신한 국가문화전략안(recommendations) 승인

- 사우디 감사원(General Audit Bureau)과 미국 회계감사원(US GAO,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)간 협력 MoU 승인
- 사우디-러시아 법무부간 협력 MoU 승인
- 한국 특허청과 사우디 지적재산청(SAIP: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)간 협력 MoU 승인
- 기상청 및 야생동물보호·환경보호·사막화방지 관련 조직 개편안 승인

3. 대외 관계

- 사우디 정부, 미국의 이스라엘 골란고원 주권 인정을 비난하고 골란고원이 시리아 영토임을 재확인하는 성명 발표(3.27, 아랍뉴스 외)
 - 미국의 이스라엘 골란고원 주권인정은 중동지역의 평화프로세스와 안정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강력 비난
- Marzouq bin Ali Al-Ghanim 쿠웨이트 의회 대변인 및 대표단은 3.24(일) Salman 국왕 및 3.25(월) Mohammed 왕세자를 각각 예방(3.24 & 25, 국영통신 SPA)
- 3.26(화) Salman 국왕, General Wei Fenghe 중국 국방부 장관 및 대표단 접견 (3.27, 아랍뉴스)

4. 주요 국내 정세

- 리야드 형사 법원, 3.27(수) 2018.5월 이후 체포, 구금중인 10명의 사우디 여성들에 대한 2차 공판(3.27, 블룸버그 통신)
 - 2018.5월 이후 체포 및 구류되어 있는 Loujain Al Hathloul(인권 운동가), Aziza Alyousef(은퇴교수), Eman Al Nafjan(블로거) Hatoon al-Fassi(역사학자) 등을 포함한 10명의 사우디 여성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공판 개시
 - 사우디 정부는 2018.5월 상기 피고인들이 외국정보기관과의 접촉 및

정보유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, 블룸버그 통신은 서방 국가 외교관 및 언론 접촉을 문제로 공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

- 재판부는 외교단 및 외신의 재판 방청 요청 거부

5. 산업·경제

- 사우디 아람코, 3.27(수) PIF 소유의 SABIC 지분을 691억불에 구매 합의 발표 (3.28, 아랍뉴스)
 - 사우디 아람코는 PIF가 소유한 SABIC의 주식지분의 전체(SABIC 총주식의 70%)를 주당 SR123.39(약 USD 32.9)인 691억불에 구매하기로 합의
 - SABIC의 잔여 30% 주식은 사우디 주식시장에 상장 예정
- Amin H. Nasser 사우디 아람코 CEO, 중국개발포럼(CDF) 및 국제석유기술회의(IPTC)에서 연설을 통해 사우디와 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 증진 필요성을 강조(아람코 공식 홈페이지)
 - 중국의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믹스 정책에 사우디의 석유가스 사업이 기여할 여지가 많음을 강조
 - ※ 사우디는 2018.11월 지난 19개월 연속 대중국 최대 석유 수출국이었던 러시아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석유 수출국으로 부상
 - 석유가스산업의 미래 성장에 대한 회의론을 반박하면서 석유가스분야에서 에너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
 - ※ 2020년 IPTC는 사우디 개최 예정
- 사우디 KACARE, WIPO Green Initiative를 통한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 파트너 모색
 - ※ WIPO Green Initiative: 전세계 녹색기술을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소의 개념으로 WIPO가 2013년부터 운영중인 프로그램

- 최근 KACARE가 재생에너지 관련 9개 프로젝트의 사업 파트너를 모색하는 제안서를 WIPO Green Initiative에 등록
- 제2차 마카 경제포럼(3.23-26, 마카) 개최(3.24, Saudi Gazette紙)
 - "The Road to an Urban Future, Invest in Makkah"라는 슬로건으로 이슬람 공동체 발전과 순례객 편의 증진을 위한 마카 지역 개발 투자 포럼 개최
 - 4대 주제(도시개발,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, 교통 및 물류, 기술 혁신 등)를 중심으로 진행
 - Prince Khaled Al-Faisal 마카 주지사와 Khalid Al-Falih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간 마카 지역 2,600 메가와트(MW)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(Faisaliah Solar Power Project)에 대한 MoU 체결(3.24)
 - Ibrahim Al-Oma 사우디 투자청장(SAGIA)은 이번에 합의된 해외 투자 중 사우디 국내 투자자와 공동으로 참여한 비율이 40% 이상이라고 언급 (3.24)
- 사우디 엔지니어 위원회, 등록된 외국인 엔지니어는 대폭 감소하고 사우디 엔지니어는 소폭 증가했다는 통계 발표(3.25, Aliqtisadiyah紙)
 - 2019.1.1-3.24간, 위원회에 등록된 외국인 엔지니어의 수는 작년 동기 대비 약 4,600명 감소한 반면, 사우디 엔지니어의 수는 약 5% 증가
 - 현재 위원회에 등록된 총 엔지니어 186,556명 중 외국인은 149,300명(약 80%), 사우디인은 37,256명
- 카림의 3대 사우디 투자자, 우버의 카림 매입으로 큰 이익 예상(3.26, 로이터 통신)
 - 우버의 카림사(Careem) 매입(31억불) 결정에 따라 카림의 주요 투자자였던 3대 사우디 투자자(AI Tayyar Travel Group, Kingdom Holding Company, Saudi Telecom)의 큰 주식 이익이 예상

6. 사회·문화

- 사우디 교육부, 중국어 교육 워크숍 개최 (3.24, 아랍뉴스)
 - 사우디 교육부는 3.23(토) 사우디 교육과정에서 중국어 교육 강화 및 확대를 목표로, “Teaching Chinese Language in Education” 제하의 중국어 교육 워크숍 개최
 - Hamad bin Mohammed Al-Asheikh 교육부 장관, 주사우디 중국대사, 주요 사우디 대학교 학장 및 교육부 관계자 등 참석
 - Al-Asheikh 교육부 장관은 향후 중국어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며, 중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중국어 교사 양성 연수 프로그램(1년 집중과정)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
 - ※ Mohammed 왕세자의 2019.2월 중국 방문시 사우디내 중국어 교육을 확대하기로 중국 정부와 협의한 바에 따른 추가 조치
- 사우디 문화부, 3.27(수) 새로운 문화 비전 전략 및 구체안 발표 (3.28, 아랍뉴스)
 - 사우디의 전통 색상으로 제작된 문화부의 새로운 로고 발표
 - 해외 예술가들의 사우디 체류 활성화를 위해 주거를 지원하는 문화 레지던스 프로그램(cultural residency scheme), 사우디 예술가들을 위한 경연, 장학금, 문화 펀드 등 다양한 문화 육성 프로그램 발표
- 사우디, 2018년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전세계 13위, 아랍국가 1위 차지 (3.24, Aliqtisadiyah紙, 3.28, Asharq Al-Awsat紙,)
 - UN ITU 발표 2018년 GCI(Global Cybersecurity Index)상 사우디는 사이버안보 분야 전세계 175개국 중 13위, 아랍국가중 1위
 - 2017년 GCI 대비 전세계 29위, 아랍국가중 4위에서 상승. 끝.